

익산 영등상권, 야간 명소로 탈바꿈

롯데마트~NH농협 익산시지부 앞 인도변 60m... 미디어아트 바다 경관 조명 운영

익산 영등상권이 미디어아트 연출로 특색있고 매력적인 야간 명소로 새롭게 단장했다.

익산시는 영등동 롯데마트와 NH농협 익산시지부 인도변 60m구간에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바다 경관 조명을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관 조명 설치하는 익산시 상인회와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익산 다로움 상권트레킹'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영등상권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총 9개의 빔프로젝트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하는 프로젝션 맵핑 방식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계절에 맞는 콘텐츠를 가미해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절기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야간경관 콘텐츠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콘텐츠는 '익산 연꽃의당'과 '영등이와 떠나는 익산여행'이다.

'익산연꽃의당'은 익산의 역사적 유물인 백제시대 수막새무늬가 들어간 와당과 연꽃의 화려한 움직임이 특징이다. '영등이와 떠나는 익산여행'은



익산 영등상권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바다 경관 조명 연출로 특색있고 매력적인 야간 명소로 새롭게 단장했다.

영등상권의 캐릭터인 '영등이'를 주인공으로 해 익산의 도시성장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익산시는 영등상권이 야간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백제단길 먹자골목에 빛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 계획이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상권 상인들도 거리에 활력이 돈

다고 만족해한다"며 "향후 빛의 거리 조성을 통해 영등상권을 야간경관 명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시민들과 상권 이용객들이 야간에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관 조명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영농현장 신속한 대응 지원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생리장해·병해충·토양진단 등

익산시가 장마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영농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생리장해·병해충·토양진단 등 3개 분야로 팀을 구성해 각 지역 농업인 상담소장과 협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윈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작물의 시기별 생리장해 및 병해충을 상시 예찰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업 현장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

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단(063-859-4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를 해소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신속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양 염류수분 측정기, 토양 채취기, 휴대용 현미경 등을 구입하고 9개소 농업인상담소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에 힘을 기울인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헌혈자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군산시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7월 6일부터 관내 혈액관리기관(헌혈의 집 군산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에서 헌혈한 시민들은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1만원권을 지급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군산시는 작년 12월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혈액원장 강진석)에 지원했고 혈액원은 지원받은 군산사랑상품권을 관내 헌혈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상품권 지원을 통해 고교, 군부대 등 단체 헌혈 위주의 유형에서 중장년층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헌



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 활성화 및 헌혈 문화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헌혈의 집 군산센터(군산시 월명로 233, 2층)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향후 상품권 지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우리들의 군산'·'키움뜨림 페스티벌' 성료

7월 6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024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과 군산근대건축관 일원에서 열린 '키움뜨림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마당'으로 관심을 끌었고, 특히 두 행사에서 운영됐던 '함께하는 미래, 군산 새만금' 홍보부스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중 홍보부스에서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만금 큐브 맞추기 이벤트가 열려 가족 단위

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은 군산 새만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시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알리는 이벤트 속에서 분열이 아닌 함께하는 새만금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청년 식품 창업기업, 수도권 판로개척 나서

'팔도밥상페어 2024'에 총 10팀 참가... 익산 농산물 활용한 '청춘포차' 등 큰 호평

익산시가 익산청년시청과 함께 청년 식품 창업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나섰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만 18~39세 청년 식품 창업기업 10팀은 '팔도밥상페어 2024'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평을 받으며 수도권 판로개척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있다.

'팔도밥상페어 2024'는 전국의 농·특산물과 식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식품 판매장으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익산청년시청은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 식품 창업기업에 부스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마케팅 전략 개선 및 제품 차별화를 도왔다.

익산 청년 식품 창업기업들은 직접 재배해 만든 볶은 서리태, 익산 고구마를 활용한 기차샌드, 익산 쌀로 만든 수제 막걸리 등 지역 농산물을 활



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였다.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청춘포차'라는 감성을 더한 포장 디자인과 부스 운영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청년 식품 창업기업 관계자는 "팔도밥상페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비자들이

의 의견을 검토해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약 5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문하는 행사인 만큼 청년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